

(Bishopdale Reformed Church translated sermon summary: Morning service)

설교주제: 구분되고 훈련된 하나님의 군대 [에베소서 4:1, 2, 17-32]

봉독자: 스티븐 반 가데렌 (Steven van Garderen)

1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여 2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17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거하노니 이제부터는 이방인이 그 마음의 허망한 것으로 행함 같이 너희는 행하지 말라 18 저희 총명이 어두워지고 저희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저희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19 저희가 감각 없는 자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20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이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21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과연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대 22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습을 좇는 옛 사람을 벗어 버리고 23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24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25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니라 26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27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28 도적질하는 자는 다시 도적질하지 말고 돌이켜 빈궁한 자에게 구제할 것이 있기 위하여 제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29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30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31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훼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32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몇몇 친구들과 토론 중에 오늘날 젊은이들이 겪는 어려움에 대해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반항심 가득한 청소년들에게 군대에서 생활하는 것 같은 환경을 만들어주어 그들의 잘못된 무법적인 생활에서 일정한 삶의 형식과 훈련받을 수 있게 할지 의논하였습니다. 그들에게 군대식 훈련을 경험해보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런 방법에는 물론 논쟁의 여지가 있을 수 있지만 그런 논쟁에 앞서 군대에 소속되어 생활하는 것은 모든 남녀노소는 분명히 다른 집단들과 구분되어진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 들을 구분 짓는 요소엔 몇 가지가 있습니다. 군인들은 제복을 입습니다. 군인들은 또한 도구들과 자원들을 효과적으로 사용하도록 훈련받습니다. 개인적으로 행동하기보단 집단으로 행동하는 법을 훈련받습니다. 군대에선 존중하는 법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질문 없이 명령에 즉각 복종하는 법을 훈련받습니다. 사실 세상에 눈에 하나님의 교회는 기본적으로 이런 비효율적인 교회군대로 묘사됩니다. 역설적으로 이런 교회의 모습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또 바라셨던 바입니다. *27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28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 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고린도전서 1:27-28). 하나님의 군대로 살아하는 것은 당신의 삶에 어떤 변화와 충격을 주나요?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다른 사회와 구분 짓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여러분은 이제 제복을 입고 군인처럼 행동해야 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구분되어야만 합니다. 이것은 여러분과 저에게 직접적인 도전이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우리의 삶이 구분되어져 있습니까? 에베소서 4:1, 2에서 사도 바울은 그의 믿음으로 인해 감옥에 갇혀있는 동안 에베소에 그리스도인들과 우리들을 불렀습니다. *1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여 2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에베소서 4:1, 2). 에베소서 4:3-16은 그리스도인들이 믿은 형제, 자매들과 어떻게 생활해야 하는지에 관한 내용들입니다.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어 화평을 누릴 수 있도록 힘쓰고 사랑 안에서 진실을 말하고 우리가 머리되신 그리스도께 자라나가기까지 모든 일에 협력해야 합니다. 에베소서 4:17은 우리가 그리스도인들로서 비신자들과 어떻게 지내야 할지에

대해 가르칩니다. *17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거하노니 이제부터는 이방인이 그 마음의 허망한 것으로 행함 같이 너희는 행하지 말라* (에베소서 4:17). 에베소서 4:17-19에 나타난 비신자들과 그들에 삶에 방식에 관한 바울의 묘사는 굉장히 강하고 직설적입니다. 비신자들을 묘사하는 바울의 언어들 은 굉장히 모욕적이고 이들 모두를 타락하고 앞, 뒤가 짝 막힌 죄인들로 취급합니다. 이것은 굉장히 거슬리며 상대방을 정죄하는 언어입니다. 이것은 성경이 사람의 내면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언어는 사람의 내면을 보고 이야기 하지만 우리 인간은 사람의 겉모습으로 판단하고 말합니다. 반면에 만약 우리가 그리스도를 내 주로 구원자로 고백하고 믿는다면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에 관한 두 가지 진실을 마주해야만 합니다. 첫째,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 그리고 성향들은 다른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과 결코 다르지 않다는 점입니다. 에베소서 2:1 은 우리도 역시 우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이란 점입니다. *1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에베소서 2:1). 둘째, 만약 여러분이 진정으로 예수그리스도를 믿는 자이라면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있는 자라는 점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로,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입음으로 여러분은 극적으로 영화롭게 지음 받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에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기억하십시오. 그 분께서는 당신을 택하시고 새로운 삶을 살게 하여 당신은 세상과 분리해 새롭고 다른 방식으로 살도록 정해주셨습니다. *22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습을 좇는 옛 사람을 벗어 버리고 23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24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에베소서 4:22-24). 이 모든 것들은 노력과 눈물과 실망과 방해 없이 순탄하게 이뤄지는 것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처럼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도록 삶에서 분투해야 합니다. 거룩함이란 우리가 구분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예전의 세상 것들과 구분되어졌다는 것입니다. *23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24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에베소서 4:23-24). 그러므로 새 옷을 입으십시오. 그리고 새 사람임을 의식하십시오. 우리 주님께 감사함과 또 순종하는 마음의 옷을 입고 그 분을 기쁘게 하십시오. 이것이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에 관한 모든 것이 아닐까요?